

번호 II-17

|           |  |  |           |       |         |
|-----------|--|--|-----------|-------|---------|
| 제 목       | 국문                                       | 부산시 일부 성인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율   |           |       |         |
|           | 영문                                       | HBsAg Positive Rate among Adults in Pusan City   |           |       |         |
| 저 자 및 소 속 | 국문                                       | 김정호, 박호추, 김휘동, 이창희, 손병철, 김대환, 이채언<br>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           |       |         |
|           | 영문                                       | Jeong Ho Kim, Ho Chu Park, Hwi Dong Kim, Chang Hee Lee, Byung Chul Son, Dae Hwan Kim, Chae Un Lee<br>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           |       |         |
| 분 야       | 보건관리 ( )                                 | 발 표 자  | 일반회원 (○)  | 발표 형식 | 구 연 ( ) |
|           | 역 학 (○)                                  |  | 전 공 의 ( ) |       | 포스터 (○) |
| 환경 ( )    |  |  |           |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 년 12 월 |  |           |       |         |

**1. 연구 목적**

간 질환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6.1명(남자 41.9명, 여자 10.2명)으로 높은 수준이며, 사망순위에 있어서도 만성 간 질환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에 이어 4위를 점하고 있다(통계청, 1998). 간 질환 중에서 B형 간염은 우리나라 성인의 주요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인 간경변 및 간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간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경우 간염의 관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동안 B형간염 표식자 양성율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최근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B형간염 표식자에 대한 조사는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시 성인을 대상으로 각 변수별 B형간염 표식자 양성율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염관리사업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999년 8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부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12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혈액을 채취하여 EIA 방법으로 HBsAg, HBsAb를 검사하였다.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연령, 성, 결혼상태, 교육정도, 음주, 흡연, 소득수준, 과거질병력, B형간염 예방접종 유무 등이었다.

### 3. 연구 결과

전체대상자의 HBsAg 양성율은 5.19%(남자 4.91%, 여자 5.32%)이었고, HBsAb 양성율은 54.05%[(남자 49.88%, 여자 56.11%)( $p < 0.05$ )]였다. HBsAg 양성율은 연령별로는 20대 9.38%, 30대 5.77%, 40대 7.06%, 50대 5.04%, 60대 6.32%, 70대 1.40%, 80대 2.56%였으며, 미혼자에서는 6.00%, 기혼자에서는 5.87%였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군이 1.83%로 가장 낮았다. 의료보험가입자의 HBsAg 양성율은 5.28%로 의료보호대상자 10.81%보다 낮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HBsAg 양성율은 낮았으며, HBsAb 양성율은 높았다( $P < 0.05$ ). 비흡연자의 HBsAg 양성율은 5.42%, 흡연자는 4.33%였다. 비음주자의 HBsAg 양성율은 4.86%, 음주자의 HBsAg 양성율은 6.67%였다.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군에서 HBsAg 양성율은 5.65%였으며, HBsAb 양성율은 50.65%였다. 가족중에서 간장질환이 병력이 있는군에서 HBsAg 양성율은 8.91%로 없는군 4.83%보다 높았으며, HBsAb 양성율은 병력이 없는 군 53.76%, 병력이 있는 군 56.44%였다.

### 4. 고찰

이상의 결과로써 볼 때 HBsAg 양성율은 과거의 기존의 연구보다 낮아졌으며, 청장년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가족 중 간장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의 HBsAg 감염에 대한 예방대책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